

“책 읽는 청소년 문화를 키우자”

아동물에서 성인으로 건너뛴 출판물들 … 청소년기의 고민 담은 책 필요

최성수

성일중학교 교사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은 가방 속에 교과서가 아닌 다른 읽을거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읽을거리라는 것들이 대개는 여전히 초등학교 때의 아동물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이야기니 뭐니 하는 개그 서적들이다.

책을 멀리하는 청소년

이학년이나 삼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독서와 관련한 아이들의 행태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뉜다. 여전히 아동물을 읽는 아이들이 한 부류고, 아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쓴 무협지나 괴기물, 성인물을 읽는 또 한 부류,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 부류다.

첫번째 아이들은 아동물 수준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다. 이 부류에는 정신적으로도 아직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두번째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아동물은 읽지 않는다. 이미 그들에게는 아동물이 유치한 책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럴 듯한 성인의 세계를 다룬 책이나 혹은 비현실적인 공상의 이야기를 다룬 책에 관심을 집중한다.

두번째 부류의 아이들은 첫번째 부류의 아이들보다 정신적 성장을 이룬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번째 아이들 역시 첫번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올바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흥미와 말초적 재미에만 빠지는 쪽으로 성장이 역시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번째나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아이들조차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 세번째 부류에 속해 있다. 남자 아이들은 농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나 컴퓨터에 빠져 있고 여자 아이들은 영화나 잡지, 노래가 문화적 향유물이다. 신세대의 아이들에게 문학이나 책읽기는 더 이상 관심 있는 갈래가 아니다.

물론, 이들 세 부류 이외에 다른 아이들도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읽기에 취미를 붙이고 체계적인 독서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서점에 나가

청소년물로 분류된

책들을 뒤적여보면 대개 논술용

책들이다. 고등학생은 그래도

성인문학에 가까운 책들을 소화할

바탕이 조금은 있지만

중학생은 전혀 다르다. 특정 시기의

갈등과 고민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창조할 만한

출판의 뒷받침이 없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작품들을 섭렵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문학에 관심을 지닌 아이들이 그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극히 적은 수라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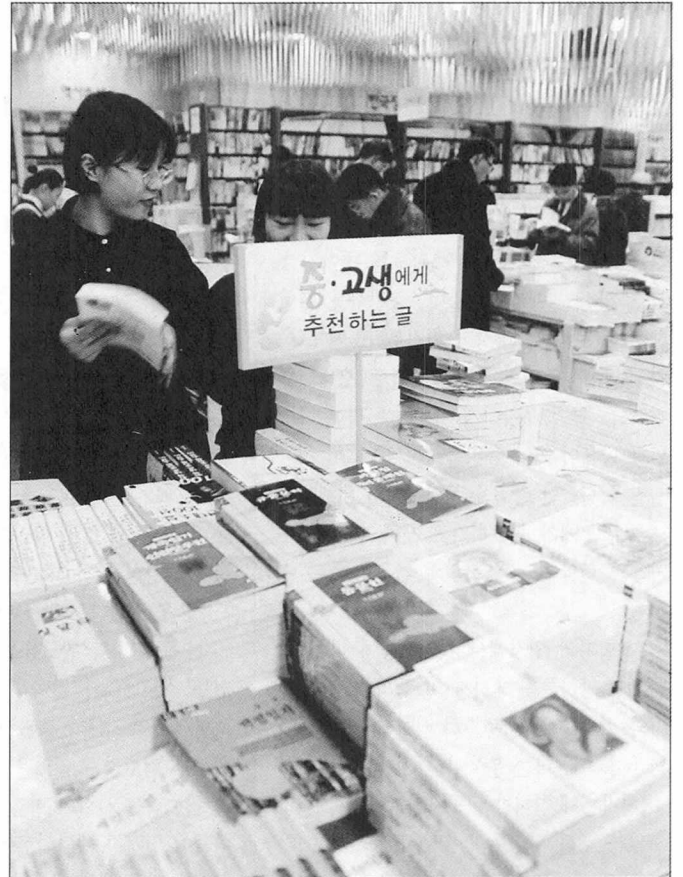
우리의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에 문제가 있다. 사실 독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정된 시간조차 없을 정도다. 지금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중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으로, 고등학교는 논술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활동은 해당되는 부서(독서반이나 문예반 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그저 시간만 때우는 식이 되기 일쑤다.

공백상태인 청소년 도서

고등학교의 논술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논술 평가가 학생의 사고체계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고체계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도, 마치 객관식 문제의 답을 찾아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책 몇 권 읽고 서론·본론·결론식으로 이어지는 형식적 틀을 공부한다고 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지금 삼십대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문화적 혜택이라곤 자연이 창조한 것들밖에



서점에 청소년물로 분류된 책들은 대개 '점수따기'식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없는 청춘을 보냈다. 농경사회의 바탕 위에 공업적인 움직임이 있던 시대의 삶이었으니 경제의 중심이 생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궁핍한 시대에 태어나 경제적 풍요를 위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던 세대였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생산중심 사회에서 소비중심 사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삶의 중심이 소비에 닿아 있게 된다. 그 소비의 정점에 정보가 있다. 비디오를 좋아하고, 컴퓨터 통신을 하느라 온 밤을 하얗게 밝히기는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적다. 책에서보다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며, 책장을 넘기기보다는 컴퓨터 CD라는 시각매체로 정보 사냥에 나선다.

이처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이들 세대에게는 책이야말로 낡은 매체라고 느껴질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앞으로는 책보다 컴퓨터 CD가 더 많이 판매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독서를 위한 방법도 이

들 세대의 특징에 맞게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은 어떤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은 결여되어 있으며, 독서교육은 여전히 19세기의 방식 그대로다. 출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나쁠수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물은 시장성이 없다고 해서 체척두고, 상업성 있는 논술 교재들만 만들어 내고 있다.

상업성 뛰어넘는 출판 의지 필요해

서점에 나가 청소년물로 분류된 책들을 뒤적여보면 대개가 논술용 책들이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선집이거나 아니면 '논술만 점 받는 법' 식의 점수따기 서적이다. 물론 이들 책도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책들이 논술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체계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지 않는 한 진정한 논술은 불가

신의 자취가 사라진 시대의 예술적 순교

《타르코프스키의 순교일기》를 읽고

남진우 · 문학평론가

능하다.

독일의 경우, 아동문학과 성인문학의 사이에 청소년문학이라는 갈래가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문학 다음 단계가 바로 성인문학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동문학만으로 성장을 멈추어버리거나 아니면 청소년 단계의 독서경험 없이 바로 성인문학으로 빠져들게 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성인문학에 가까운 책들도 읽어 소화할 만한 바탕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중학생은 전혀 다르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동기와는 다르고 그렇다고 성인에 근접해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시기적 갈등과 고민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문화로 창조해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90년대 초반,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법 많은 책들이 쏟아진 적이 있다. 교사가 직접 쓴 작품도 있었고 하이틴물과 엇비슷한 관점에서 발간된 책도 있었으며, 그런 작품들 중 일부는 영화로 만들어져 같은 입장에 있는 여러 아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 성장소설의 시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은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잠시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글쓰는 이는 글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 청소년기의 문학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출판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물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세대적 특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독서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화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서는 그 나라의 미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상업적인 틀에서 청소년 대상의 출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내일의 싹을 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물 출판에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무신(無神)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인이라 인간중심주의라는 폐쇄회로에 갇혀 있는 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신을 상실하고 신을 망각한 채 자신이 아는 것이 곧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눈뜩 장님들의 시대, 그것이 바로 20세기이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가 유의미한 것은 이 오만한 피조물들을 향해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삶 저편'을 손짓해 보였다는 데 있다. <안드레이 류블로프> <솔라리스> <거울> <노스텔지어> <희생> 등 타르코프스키가 감독한 영화는 한결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침묵, 그리고 고결한 희생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타르코프스키는 우리 시대에 희귀한 종교적 인간이며, 그가 일관되게 지향한 것은 인간의 영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타르코프스키의 이런 정결하면서도 치열한 예술혼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역력히 드러나 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에 예술론이 집약된 《봉인된 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를 찾아온 산문집 《타르코프스키의 순교일기》(김창우 옮김)에 실려 있는 글들은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한 예술가의 고독하고 숭고한 투쟁을 기술하고 있다.

타르코프스키의 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

타르코프스키가 감독한 영화는

한결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침묵을 이야기한다.

그의 정결하면서 치열한

예술혼은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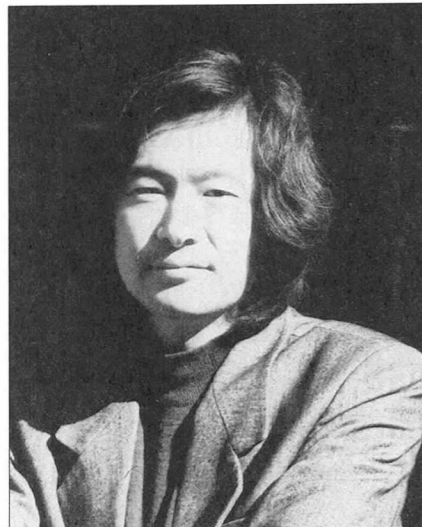
글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예술론이 집약된 《봉인된 시간》에

이은 이번 산문집은

시대와 불화한 한 예술가의

숭고한 투쟁의 기록이다.



남진우씨.

하고 있는 것들로는 구소련의 억압적인 관료체제와 경직된 예술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 체제순응적인 주변 영화인들에 대한 염증, 자신이 만든 영화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 만들고 싶은 영화에 대한 갈망, 가족에 대한 사랑,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한 걱정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러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인간중심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혐오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세계관의 모색으로 귀결된다.

그가 "인류는 육체를 보호하는 데는 애써왔지만 영혼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았다"면서 "문명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절반인 영성적 측면은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어왔

다"고 지적한 대목은 그의 고민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현대인은 지금 '영성적 결핍'이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 수준 또한 폭락하고 말았다. 타르코프스키는 이런 세태와 끈질기게 맞서 싸운, 구도자적 예술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 "어쩌서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성자(聖者)로 만들려고 하는가? 제기랄! 나는 단지 창조적인 일을 원한다"고 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자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는 심성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준다.

그의 금욕적인 기질과 희생에 대한 소명 의식은 그의 영화를 소련은 물론이고 금세기를 통틀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예술적 성과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그의 예술적 순교를 통해서, 신의 자취가 사라진 이 시대는 멀리서나마 구원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영화에서 그랬듯이 글에서도 타르코프스키는 오늘날 예술의 존재방식과 그 의의에 대해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

두레/A5신/408면/8500원

